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미 경제 성장, 평균치 밑돌아
- CNBC: 수만 명 미 공무원 감원, 제 여파 줄 것인가
- WSJ: 미 경제 갈수록 부유층에 달렸다

[미국 금융]

- WSJ: 이번 주 미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등 주요 지표 발표

[트럼프 행정부]

- Bloomberg: 트럼프 2기 들어 중국에 가장 강력한 조치 시행
- Bloomberg: 트럼프, 멕시코에 중국산 관세 부과 요구
- WSJ: 미국, 중국 선박 미 입항 시 막대한 수수료 부과 추진
- WSJ: 동부 및 걸프만 항구 노조, 이번 주에 임금안 투표 예정

[인공지능]

- CNBC: 애플, 텍사스에 대규모 AI 제조 시설 오픈

[에너지]

- WSJ: 트럼프, 미 풍력발전 산업 마비시키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온라인 쇼핑으로 오프라인 매장 제품 수 줄어
- TechCrunch: 2025 현대 아이오닉 5, 테슬라 충전 포트 호환성 문제
- Bloomberg: 스타벅스, 구조 조정으로 1천1백 명 일자리 줄여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WSJ: U.S. Economic Growth Falls Back Below Average

미 경제 성장, 평균치 밑돌아

- 미 경제 활동이 올해 시작되면서 페이스를 잃고 있다.
- 시카고 연준의 미 활동 지수는 12월에 0.18에서 1월에 0.03으로 줄었다. 수치가 0일 경우 성장이 장기적인 평균치에 뒤처진다는 의미다.
- 3개월 이동선을 비교해 봤을 때도 12월에 0.13에서 1월에 0.03으로 감소했다.
- 이 같은 경제 성장세의 약세는 생산성과 개인 소비와 주택 활동이 올해부터 약세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반면에 고용 관련 지표는 모멘텀있어 일자리 시장이 여전히 견조한 상황이다.

WSJ 기사

CNBC: How the Trump and DOGE terminations — perhaps the biggest job cuts in history — may affect the economy**수만 명 미 공무원 감원, 제 여파 줄 것인가**

- 백악관과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정부효율부는 현재까지 수만 명의 연방 공무원을 감원했으며, 이 중 상당수는 근무 연수가 1~2년에 불과한 수습 공무원인 것으로 보인다.
- 이번 감원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일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 차원에서 최대 감원을 기록했던 1993년 IBM의 6만 명 감원 사례와 비교될 수 있다.
- 해고된 연방 공무원들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워싱턴 D.C.와 같은 지역은 경제 침체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CNBC 기사

WSJ: The U.S. Economy Depends More Than Ever on Rich People**미 경제 갈수록 부유층에 달렸다**

- 많은 미국인은 고물가와 강한 인플레이션으로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 이러한 가운데, 연간 25만 불 이상의 수입을 내는 상위 10%의 가구 계층은 주식과 부동산 등의 상승으로 인해 휴가와 고급 가방 구매 등 지출을 크게 하고 있다.
- 무디스 통계에 따르면 이들의 지출은 30년 전에 미 전체 지출의 36%에 달했으나 최근엔 49.7%로 거의 반 정도를 점하고 있다.
- 따라서 미국 경제는 이들 부유층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 상위 10%가 미 전체 국내 생산량의 약 3분의 1을 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WSJ 기사

[미국 금융]**WSJ: Week Ahead for FX, Bonds: U.S. PCE Data, German Elections in Focus****이번 주 미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등 주요 지표 발표**

-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수인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PCE)가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된다. 며칠 전 발표된 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보다 높았다.
- 그러나 분석가들에 따르면, 핵심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에 포함되는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의 일부 요소와 그 이후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가 강

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보여준 것과는 달리 인플레이션 압력이 우려스럽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현재 연준은 빨라도 올가을까지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며 오는 9월에 0.25% 포인트 금리 인하가 미 머니마켓에 반영된 상태다.
- 내일 화요일에는 소비자 신뢰지수 그리고 이후 4분기 경제성장률, 1월 내구재 관련 데이터가 발표된다.

WSJ 기사

[트럼프 행정부]

Bloomberg: Trump Targets China With Biggest Salvo So Far in Second Term

트럼프 2기 들어 중국에 가장 강력한 조치 시행

- 트럼프는 투자와 무역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 중국을 겨냥하고 있어 양국 간의 관계가 곧 악화할 위험이 있다.
- 트럼프는 최근에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에 기술과 에너지 등 주요 미국 산업체 중국의 투자를 제한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 또한 멕시코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 1기 시기에 미국 관세를 피하고 자 멕시코로 우회해 생산과 수출을 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 또한 중국의 선박 생산 주도권을 막기 위해 중국에서 생산된 상업용 선박을 사용할 경우 수수료를 매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 이 같은 조치들은 북경을 표적으로 한 광범위하고 강력한 조치로 볼 수 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Trump Team Pushes Mexico Toward Tariffs on Chinese Imports

트럼프, 멕시코에 중국산 관세 부과 요구

-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멕시코 관리에 미국이 부과하려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 지난 주 목요일, 미국 연방 상무장관은 멕시코 경제부 장관 등 고위 관리들과의 회담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으며, USTR(미 무역대표부) 지명자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Kevin Hassett도 참석했다.
-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의 25% 관세 부과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Bloomberg 기사

[물류]

WSJ: U.S. to Hit Chinese Ships With Hefty Port Fees
미국, 중국 선박 미 입항 시 막대한 수수료 부과 추진

- 미국은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이어 중국 선박이나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이 미국에 입항할 경우 막대한 신규 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현재 중국의 조선소에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화물선의 절반을 건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수입업자들과 수출업자들의 비용 지출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 또한 이번 방안은 일정량의 수출 물량을 미국 국적의 선박이나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으로만 운송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 미국산이 아닌 선박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WSJ 기사

WSJ: U.S. Dockworkers Vote on Labor Deal This Week
동부 및 걸프만 항구 노조, 이번 주에 임금안 투표 예정

- 미 동부 및 걸프만 항구 노조들은 향후 2030년까지 임금을 인상을 포함한 계약에 대한 찬반 투표를 이번 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표결로 인해 지난 10월 3일간의 파업을 촉발했던 임금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 내일 진행될 표결에서 임금 협상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으며, 총 62%의 임금 인상과 함께 항만 자동화로부터 부두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일부 원격 조작 크레인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WSJ 기사

[인공지능]

CNBC: Apple to open AI server factory in Texas as part of \$500 billion U.S. investment
애플, 텍사스에 대규모 AI 제조 시설 개설

- 애플은 파트너들과 함께 텍사스 휴스턴에 25만 스퀘어 피트 규모의 AI 서버 제조 시설을 건설하여 미국 내 제조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 해당 프로젝트는 내년 완공 예정이며, 애플은 향후 4년간 미국에 5천억 불을 투입할 계획이다.

- 애플은 이 같은 공장 건설 외에도 해당 기간 미국에서 2만 명의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NBC 기사

[에너지]

WSJ: Trump Paralyzes the U.S. Wind Power Industry 트럼프, 미 풍력발전 산업 마비시키다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육상·해상 풍력 발전 허가 와 임대 를 중단 하는 행정명령을 내려 산업이 난항에 빠졌다.
- 개발업체들은 풍력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프로젝트를 연기하고 투자를 줄이고 있다. 선거 이후, TotalEnergies는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4년간 보류했고, 석유 기업 Shell과 해상 풍력 개발 업체 Orsted는 각각 10억 달러, 17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하며 투자 계획을 축소했다.
- 또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금리 상승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포함된 풍력 산업 세금 공제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추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How the Internet Made In-Store Shopping Miserable 온라인 쇼핑으로 오프라인 매장 제품 수 줄어

- 온라인 쇼핑 확산으로 인해 실제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수가 감소했다. 컨설팅 업체 AlixPartners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여성 의류 제품 중 평균 9%만이 실제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온라인 판매 확대는 아마존과의 경쟁 심화, 중앙 물류창고 운영을 통한 비용 절감,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문제로 인한 매장 내 재고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 IBM 비즈니스 가치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소비자의 74%가 오프라인 쇼핑을 선호하지만, 단 9%만이 매장 경험에 만족하며, 주요 불만 요인은 상품 부족과 재고 문제였다.
- 대형 유통업체 Kohl's는 오프라인 매장 재고를 다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백화점 체인 Belk는 온라인 물류 센터를 폐쇄하고 매장 내 재고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WSJ 기사

TechCrunch: Hyundai's new Tesla charging port comes up short

2025 현대 아이오닉 5, 테슬라 충전 포트 호환성 문제

- 2025년형 현대 아이오닉 5는 테슬라의 NACS(북미 충전 표준) 포트를 탑재했지만, 충전 포트 위치 문제로 테슬라 슈퍼차저에 케이블이 닿지 않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 앞서 현대와 기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업체는 향후 출시될 전기차에 테슬라의 NACS 충전 기술을 통합하는 데 동의하며 NACS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 그럼에도 아이오닉 5는 기존 CCS(Combined Charging System) 충전 방식이 여전히 더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CCS 충전소에서는 10%에서 80%까지 약 20분 만에 충전이 가능하지만, NACS 충전소에서는 최대 30분이 소요된다.
- 현대차는 충전 편의성 개선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아이오닉 5 구매자는 \$400 충전 크레딧 또는 무료 ChargePoint 홈 충전기 선택이 가능하며, 기존 CCS 차량 대상 무료 NACS 어댑터 지원을 제공한다.

TechCrunch 기사

Bloomberg: Starbucks Cuts 1,100 Corporate Jobs to Speed Up Turnaround

스타벅스, 구조 조정으로 1천1백 명 일자리 줄여

- 스타벅스는 효율성 증대와 회사의 빠른 회복 차원에서 1천1백 명의 직원을 줄이고 있다. 이번 감축 인원은 자사 직영 가게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글로벌 직원의 7%에 해당한다.
- 스타벅스는 직원 수에 대해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데, 글로벌 일터의 직원 상당수는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다.
- 스타벅스는 지난 9월에 새로운 CEO를 선임했으며 올해 1월에 구조 조정을 발표했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美재무 "상호관세, 불공정 지속시엔 상승...교정시엔 낮아질수도"

"트럼프, 공정무역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건 뭐든 할 것"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상호 관세와 관련, "만약 그들이 (다른 나라)이 불공정 거래 관행을 지속하고자 한다면 그들이 협상하려고 할 때까지 관세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베센트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그것(상호 관세)은 (향후)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4월 1일 (상호 관세 관련) 보고서를 생산 할 것"이라면서 ▲ 관세 ▲ 비관세 장벽 ▲ 환율 조작 ▲ 중국과 같은 자국 기업 자금 지원 ▲ 유럽연합(EU)과 같은 미국 빅테크에 대한 소송 등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